



전통만 고집해선 불교 미래 없다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대토론회 첫번째

한국불교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월 27일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현재적 성찰과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는 불교위기

론에 공감한 출·재가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더 이상 변화의 고민 없이 옛 전통만 내세우며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고 구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불자들의 각성과 쇄신을 강조했다.

자승 스님은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이 서로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같은지 확인해 합의점을 도출해내고 이에 따라 부처님 정법을 바탕으로 불교를 만들어가기 위한 탁마의 자리로 삼자"고 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도 격려사를 통해 "지금까지는 승복 소매 자락에 손을 넣은채 바라보기만 하는 방관자였다면, 이제부터는 자비심을 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승가가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인지 살필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양한 문제에 대한 각자의 해결 방안을 모으는 자리인 만큼 이날 토론자들의 위기원인과 해결방안은 다양했다.

기초발제를 맡은 총무원 기획실장 원담 스님은 한국불교가 사회의 거대담론 논의에 배제된 현실을 지적하며 민주화, 통일, 인권, 환경문제 등 현실사회에 대한 관심 부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수행기풍과 청빈한 삶의 기초가 흔들린 데서 한국불교 위기의 원인

을 찾았다.

주경 스님은 "조계종도 독신비구로서의 존재 유지와 몇몇 법적 제한을 제외하면 무한한 자유로운 상태"라며 "현대 사회에서 출가 승단의 구성원으로 가져야 할 구체적인 원칙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승가 수행의 원칙인 탁발과 무소유 정신도 거의 포기된 형편"이라고 말했다.

주경 스님은 "재산 소유에 대한 원칙과 규정이 없는 까닭에 중생들과의 만남은 단절되고 세속적인 정치화와 혼탁한 선거풍토 유입이라는 병폐를 끌어들이게 됐다"고 진단했다.

주경 스님은 해결 방안으로 △현실적인 승려 위상과 위의 정립 △수행과 포교, 교화활동의 조화를 꼽았다.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대토론회 자체에 의미를 부여했다. 성문 스님은 "승단을 운영함에 있어 비구들이 자주 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제반행사를 치르는 것은 오늘날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환지분처를 통한 불교 중흥"을 이룰 것을 강조했다. (3면으로 이어짐)

노덕현 기자 noduc@naver.com



1300년 만에 고국에 온 왕오천축국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 스님들과 총무원 200여 명은 1월 24일 1300년 만에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혜초 스님의 '왕오천축국전' 이 전시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아 '실�크로드와 동행' 특별전을 관람했다. 박재완 기자 wanholo@hanmail.net

'21세기 아쇼카 선언' 한다 화쟁위, 종교평화 등 신년사업 확정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올해 종교평화와 남북갈등 해소, 화쟁사상의 사회적 확산에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21세기 아쇼카 선언' 등 종교평화선언과 화쟁포럼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도법)는 1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1년 3대사업들을 확정했다.

화쟁위는 종교평화를 위해 종교평화 선언을 준비 중이다. 종교평화 선언은 이웃종교에 대한 존중을 역설했던 인도 아쇼카 왕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21세기 아쇼카 선언'이라 명명할 불교계 자체의 선언과 범종교·시민사회와 연대한 선언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1세기 아쇼카 선언'에는 불교인이 이웃종교를 어떻게 대해야 하고, 종교평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총론과 강력명령 지침이 담길 예정이다.

선언문 조문 작업에는 신설된 기획위원회(위원장 성태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를 중심으로 종단 안팎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범종교·시민사회 공동 종교평화 선언은 화쟁위가 이웃종교, 시민사회와 공동 작업을 벌인다. 중

교평화 선언문에는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항구적 종교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교평화 선언이 절실하다는 당위성과 범종교·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실무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화쟁위는 남북 갈등이 해결돼야 남북간 대립을 해소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대전제 하에 남북평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프로젝트는 보수·진보간 대립 해소에 중점을 맞춰 진행된다.

화쟁 사상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서는 종교계, 학계, 언론계, NGO 등 오피니언리더 그룹을 결집한 '화쟁포럼'을 운영하기로 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화쟁포럼은 세미나·문화마당을 통해 화쟁 사상이 사회적 실천 담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새로운 불교(Smart Buddhism)를 위한 브레인 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위원회에는 박경준 교수(동국대) 조성택 교수(고려대) 이찬수 교수(강남대) 정윤선 KIST 연구원 강영진 강동해결센터 대표 등이 참여한다.

조동섭 기자 celana@gmail.com

불자인 것 당당히 밝혀 당선됐다

민주당 노인위원장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장

개신교인들의 불자에 대한 배타성으로 인해 대외적으로 불자인 것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특히 선거에 의해 정치 생명이 좌지우지되는 정계에서는 한 표라도 민심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가운데 불교 활동 경력을 당당하게 밝히고 정치권에서 당선된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끈다.

민주당 노인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된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장(사진)이 그 주인공. 선진규 정토원장은 조계종 포교사 제1세대로 포교론 등을 정립한 인물이다.

선진규 정토원장은 1월 18일 치러진 민주당 전국위원장 선거에서 총투표수 1867표 중 939표, 득표율 50.3%로 노인위원회에 당선됐다.

일생을 포교에 전념하던 선진규 원장은 故 노무현 前 대통령과의 반연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이게 됐다.



선진규 원장은 28일 수송동 인근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포교가이다. 무엇 하나도 포교를 떠나 생각한 적도 행동한 적도 없다"며 "노인위원장도 포교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 나선 것 뿐"이라고 말했다.

선 원장은 "민주당 내 세력들의

알력이 심해 SMS를 통한 흑색선전, 편파적인 여론조사로 선거를 치르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나의 노인위원장 당선은 불자임을 밝히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고정관념을 깬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고 자평했다.

선진규 원장은 "최고위원, 정책의장, 원내대표 모두 개신교인인 민주당 내에서 불자임을 밝히도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 보였다"며 "포교를 위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자신이 불자임을 떳떳이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 원장은 "故 노무현 前 대통령의 유해를 정토원에 봉안했다. 재가자인 내가 법사로 있는 정토원에 봉안된 것은 재가불자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섭 기자

종교편향 방지 공무원 지침서 나온다

불자 국회의원 출신 정병국 신임 문광부 장관

불자 국회의원의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이 "종교편향 방지 공무원 지침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병국 장관은 1월 17일 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정회에서 "장관이 된다면 종교 편향 방지 공무원 지침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한 나라를 조율하는 의원의 "공직자의 종교 편향 발언 실수 원인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같은 뜻을 밝혔다.

정병국 장관은 "일부 공직자들

의 종교편향 발언은 종교분쟁으로 비화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불필요한 종교 갈등을 불러 일으켜 국론 분열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불교문화재 등 문화재 소방 방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병국 장관은 "문화재 방재 체계는 시스템은 있어도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형식적인 데가 많다. 우리나라 전체 문화재의 60% 이상은 불교 문화재로서, 전체적으로 방재 시스템 모델을 만

현대 불교 신문
한국불교중앙협의회 공동캠페인
한국불교기자협회
올해는 불기 2555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온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위해 번을 떠나고 입멸하신지 2555년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능인향당
능인향당의 침향전문점
침향갤러리
침향복합관·침향영주·침향선향

갤러리 02-738-6777 (조계사 맞은편)
문서 02-3663-6777 www.nhw.com



들고 유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서 공식업무에 시작했다.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822호 CONTENTS

▶5 특집인터뷰 / 현각 스님



▶6~7 특집 현장속으로 시민사회네트워크



▶14 불자기업 탐방 / 능인향당



▶15 정찬주의 행복한 선 여행



* 좌선, 기도하시는 스님들께서 직접 착용해보고 인정하신 제품입니다.

스님, 현장근무, 군인, 시장상인, 경비, 낚시, 부모님 효도선물, 등산, 골프 야외활동에 좋음! 기압제품 및 단체주문 환영!!

관절염 예방, 무릎보호 기능성 기모 털내복

좌선·기도 전용 관절보호 털내의 SET

2겹 봉제의 강력한 관절보호 발열 털 기모 내의 세트

관절부분이 2중으로 제작되어 관절에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줍니다. 털원단 2겹 봉제로 원단과 원단사이 공기층이 형성되어 보온층이 뛰어납니다.

입은 듯 안입은 듯 가볍고 따뜻하게

섬유사이의 공기층이 단열효과를 발휘하여 외부 찬 공기 유입을 막고 내부에서 발생한 열의 방출을 최소화 시켜드리며 우수한 원단의 탄력과 밀착성으로 걸 옷 착용시 활동하기 편리합니다.

최고의 좌선 내의로 효율적

신축성이 강한 소재를 사용하여 몸에 밀착이 되어도 착용시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탁월한 소재의 원단으로 강하고 반복적인 움직임에도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무릎관절 부분 2겹 봉제

무릎관절 부분이 2중으로 봉제되어 좌선시 가장 취약한 무릎관절로 들어오는 냉기를 막아주고 관절을 보호해 줍니다. 추운 겨울 보다 효율적으로 신체보호 기능을 보여드리는 최고의 좌선 관절 보호 털내의 지신있게 선보여 드립니다.

- 색 상 : 회색
- 구 분 : 남성용, 여성용
- 사이즈 : 상의 - XXL / 하의 - FREE, XXL
- 가 격 : 상·하의 각 ₩20,000원

※ SET 구매 시 ₩38,000원

구입 및 제품문의

02)2264-7947 / 011-9947-794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7502-04-027453 예금주:김은정



2중 재봉된 무릎부분



모든 부분 인감 봉합